



정교회주보

제2492호

2024.09.2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폴란드 북동부 수프라실 지역의 성모 히보 수도원(사진)은 1498년 설립되었다. 수도원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라브라와 그리스 아토스 성산 등 여러 수도원과 교류하면서 정교회 문화의 중요 장소로 자리 잡았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재건되었고, 지금도 주요 건물 복원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 공식 폴란드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안다

아버지는 희생시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결정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요한 10,17)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아들의 자비심에 의해,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그의 뜻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희생 의지와 아버지를 아는 것 사이에 하나의 관계를 확립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요한 10,15) 아버지를 아는 것은 희생 의지 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루가 제2주일

성 기리아코스 수도자
성 페드로니아 순교자
(제5조 •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1,21~2,4 (봉)239
 - 복음경 : 루가 6,31~36 12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그리스도 없는 삶은 곧 죽음입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가.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그들도 살아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삶(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즉, 사람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균형잡힌 상태에서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에서 말하는 ‘삶’은 단순한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숨 쉬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조된 존재(피조물)가 창조되지 않은 분(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분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생명)은 관계 속에 있지, 분리와 분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 혼란, 불안, 걱정,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종종 비관과 절망과 우울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더 넓게는 주변 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맞이하는 죽음은 곧 삶(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삶(생명)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통합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요한 11,25).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들과 순교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하는 “복된 안식”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것은 ‘잠’과 같으며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1 고린토 15,54)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채 살고 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2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낯선 이의 집이나 방에 갑자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 들어오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는 다음에,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지혜로운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낯선 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싫증이 난 듯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윗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는 그를 앞질러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천국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축복의 정수(精髓)가 발견됩니다.

자선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군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자기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을 보실 때면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선물을 획득하는 마음의 열쇠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누구라도 병든 자기 자매나 형제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느님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은 그의 하루하루가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의 말로써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하느님의 힘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매나 형제가 무엇인가로 인해 대단히 슬퍼한다는 것을 듣거나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물질적인 것으로는 도울 수가 없고, 다만 동정과 연민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게 될 때, 그는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형제에게 앙갚음을 하지 않고 슬픔을 주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0월 3일(목)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오전 9시 30분: 수도원에서
조과 및 성찬예배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목),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9시 30분에, 성찬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림

■ 대교구 설립 20주년 기념 성찬예배

지난 주일(22일), 대교구 20주년 기념 성찬예배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니콜라오스 대주교(메소게아 대교구),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미하일 리우미스 수석신부(메소게아 대교구),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로만 대신부, 에반겔로스 티아니 신부(케냐 나이로비 대교구),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공동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을 위한 추도식이 있었고, 이어서 선교회관에서 성가대 공연 및 오찬이 있었습니다. 축일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10월 20일(주일), 성찬예배 후에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영성의 샘터

왜곡된 영적 생활

스키티의 어떤 수도자는 기도에 있어서는 열성적이었지만 다른 것에서는 나태했다. 하루는 사탄이 스키티의 스승들 중 한 명을 찾아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너희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한 족속들이군.”

“왜 그러지?” 스승이 물었다.

“어떤 수도자를 보라. 그는 갑자기 자기 겨드랑이 속으로 나를 잡아채고는 내 모든 뜻을 행하면서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짝 조이지. 그런 후에는 오랜 시간 서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